

한화케미칼, 드림파마 매각 “속도”

안국약품, 6월25일 본입찰 참여 표명 ... 차바이오·알보젠과 3파전

안국약품(대표 어준선)은 6월19일 한화케미칼의 자회사 드림파마 인수와 관련해 본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6월25일로 예정된 드림파마의 본입찰을 앞두고 인수 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참여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중견 제약기업인 안국약품은 매출의 대부분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 의약품에서 나오고 있어 비급여 비만치료제에 강점을 갖고 있는 드림파마를 인수하면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드림파마 인수 본입찰에는 안국약품 이외에 차바이오 그룹과 미국계 제약기업 알보젠(Alvogen)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입찰에 앞서 예비입찰에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며 드림파마에 관심을 보였던 JW중외제약과 광동제약은 5월20일과 6월2일 잇따라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관계자는 “안국약품이 드림파마 인수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영업력을 기반으로 최근 마케팅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드림파마와 주력제품이 겹치지 않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화케미칼이 지분 100%를 보유한 드림파마는 처방의약품을 주력으로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 매출액은 930억원, 자산총계는 1900억원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06/20>